

들쭉날쭉 KIA '5강 자격' 입증하라



KIA 타이거즈가 5강의 꿈을 이루기 위해 '5강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예측 불허의 2016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어떤 계 진자 모습인지 짐작할 수 없는 KIA의 들쭉날쭉한 플레이에 결과도 들쭉날쭉이다. 앞선 주말에는 '천적' NC를 상대로 싸늘이 3연승을 안고 왔던 KIA는 지난 주말에는 넥센전 연패를 9연패로 늘렸다. 고척 돔에서만 6연패다. 7연승을 눈 앞에 두고 당한 LG전 역전 패가 주말 잠극의 복선이었다. 2회 9득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회 4실점을 하면서 꼬여버린 마운드. 경기가 역전패로 끝나면서 충격은 더 컸다. 기록 많은 지크가 넥센전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고척돔 첫 승도 무산됐다. 이준영·홍건희의 묵묵한 분투가 있었지만 심동선·한승혁의 동반 부진이 아쉬웠다. 임창용도 돌아왔지만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다. 여기에 부끄러운 실수들이 속출하면서 패배가 더 아팠다. 무섭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넥센 선수들 앞에서 스스로 주눅이 들면서 자존심을 구긴 선수들이다. 원정 9연전을 충격의 3연패로 시작한 KIA는 이번 주 수원으로 가 kt와 주중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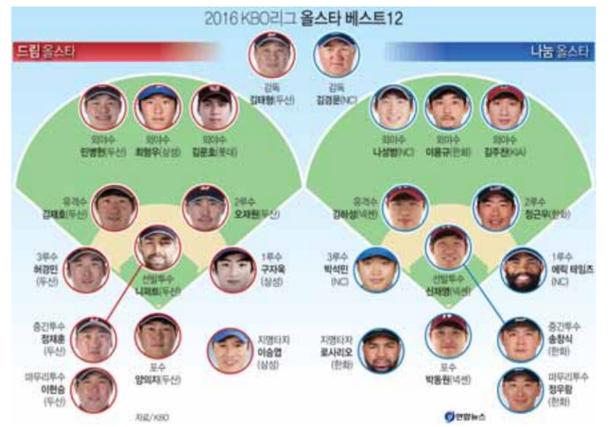
NC에 스윙승·넥센엔 스윙패... '천적'에 울고 웃고 6연승 질주 '반짝 5위'... 7점차 역전 당하고 4연패 두산 등 특정팀에 기 싸움 안밀려야 '가을잔치' 간다

■ 프로야구 순위 (4월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두산	52	1	22	0.703	0.0	2승
2	NC	42	2	25	0.627	6.5	1패
3	넥센	42	1	34	0.553	11.0	5승
4	SK	40	0	37	0.519	13.5	2승
5	롯데	35	0	39	0.473	17.0	4승
6	LG	32	1	39	0.451	18.5	2패
7	KIA	33	1	41	0.446	19.0	4패
8	kt	30	2	41	0.423	20.5	1승
9	삼성	31	0	44	0.413	21.5	3패
10	한화	28	2	43	0.394	22.5	3패

연전을 치르고, 주말에는 잠실로 이동해 두산을 만난다. kt전에는 악재와 호재가 겹친다. 넥센전 혈투를 하느라 전력 소모가 컸던 KIA에 비해 kt는 주말 3연전을 모두 비로 쉬어가면서 전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주고 있는 양현종-헨터-지크가 나란히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kt전 호재다. 하지만 주말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 마운드 고민이 우선이다. 소식 없는 윤석민과 김진우의 당혹스런 발가락 부상 속

마운드 전략이 전면 수정됐다. 임창용이 가세한 불펜, 홍건희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일단 선발 한 자리를 채웠지만 여전히 한 자리가 남는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3일 경기에 앞서 임창용의 성적에 따라서 선발진 구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임기춘은 3일 선발 등판에서 4.1이닝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용이 좋지 못하다. 4개의 피안타와 함께 7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면서 답답한 피칭을 이어갔다. 넥센의 주루 실수가 도와준 2실점의 4.1이닝이었다. 전력도 전력이지만 '기싸움'이 가장 큰 고민이다. 공은 둥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넥센·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모습이다. '어려운 상대'라는 인식을 지우고 부족한 실력은 강격의 실수로 만회해야 한다. 강격이라도 이기는 법은 있다. 세밀하고 배짱있게 그걸 준비하고 만드는 게 프로다. 프로, 5강의 자격을 보여줘야 하는 '호랑이 군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주찬, 프로야구 올스타 선정

NC 나성범 최다득표

프로야구 별 중의 별 '베스트 12' 24명이 최종 확정됐다. 오는 16일 고척 스키야드에서 열리는 2016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 '베스트 12' 24명이 발표됐다. 팬 투표(70%)와 10개 구단 감독, 코치,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한 결과 이번 올스타전 최고의 별은 NC 나성범이 됐다. 나눔 올스타(KIA, NC, 넥센, 한화, LG) 외야수 부문의 나성범은 10개 구단 120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61.89점으로 KBO 리그 최고 인기선수에 등극했다. 팬 투표 3차 집계까지 최다 득표 선수를 지킨 나성범은 최종 집계에서 101만 9654표를 기록, 한화 이용규에게 7674표 차로 선두에서 밀렸지만 선수단(236표)

의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인기 선수가 됐다. 드림 올스타(두산, 삼성, SK, 롯데, kt)에서는 두산 니퍼트가 56.13점으로 선발투수 1위에 올라 처음으로 베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재훈·이현승·양지·하경민·김재호(이상 두산), 김문호(롯데), 신재영·박동원(넥센), 송창식·로사리오(한화)도 생애 첫 베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영은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로 개인 통산 10번째 올스타전 무대에 오르게 됐다. 지명타자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KIA에서는 외야수 김주찬이 팬과 선수들의 선택을 받았다. KBO는 팬과 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24명 외에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두산 김태형, 나눔 올스타·NC 김경문)이 추천하는 24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정해 6일 발표한다. /김여울기자 wool@

KIA는 고척돔 효자

넥센 승수 챙겨 주고... 관중 가득 채워주고

고척만 가면 우는 KIA 타이거즈. 그들의 방문이 반가운 넥센 히어로즈다. 지난 2일 고척돔에서 열린 KIA와 넥센의 경기에는 1만7000명의 관중이 찾아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시즌 다섯 번째 매진이다. 이 다섯 번의 매진에서 세 경기를 책임진 팀이 바로 KIA다. KIA의 고척 첫 나들이였던 지난 5월 6일, 금요일이었지만 관중석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한 경기 만루홈런 두 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속에 6일 경기가 6-15의 대패로 끝났지만 7일에도 만원 관중이 찾으면서 KIA는 두 경기 연속

매진을 이끌었다. 2일 경기까지 고척에서 치러진 42경기에서 45만1601명의 관중이 찾았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52명이다. KIA의 경기를 빼어놓고 보면 계산이 달라진다. KIA전 6경기를 제외한 36경기에서 35만 5968명이 입장, 경기당 평균 관중이

9888명으로 떨어진다. KIA가 고척을 찾은 6경기에는 9만5633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5938명에 이른다. '호랑이 군단'의 티켓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KIA의 방문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넥센이다. 관중도 관중이지만

KIA가 안겨주는 승리도 반갑다. KIA는 고척 첫 방문에서 싸늘이 3연패를 당했고, 지크가 출격한 지난 1일과 홍건희가 분투를 한 2일에도 승리를 행하지 못하면서 만원 관중 앞에서 내리 5연패를 당했다. 그리고 3일에는 11회 연장 승부 끝에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고척전 6경기 전패를 기록했다. 넥센 입장에서는 입장료 수익에 짜릿한 승리까지 안겨주는 인식 좋은 KIA. 반면 원정경기를 기다리며 예매전쟁을 벌이는 수도권 팬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주는 KIA다. /김여울기자 wool@

야구장 소음훈련 기보배·최미선 "사실, 조금 떨렸어요"

양궁 올림픽·국가 대표 고척돔서 소음적응 훈련 "여자 양궁 팀워크 좋아...8연패 최선 다하겠다"

세계 무대를 호령한 '신궁' 기보배(광주 시청)의 손도 떨리게 한 긴장감 넘치는 훈련이었다. 지난 주말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고척돔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수들이 찾았다. 소음적응 훈련을 위해 2일 남자대표팀에 이어 3일 여자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설치된 과녁을 겨냥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신궁 기보배와 최미선(광주 여대)도 야구장에 발걸음을 했다. 남자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청 박채순 감독도 모습을 보였다.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 대표 선수들이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훈련이 끝난 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더라. 긴장 하나도 안 하던데"라는 박채순 감독의 이야기에 기보배는 "긴장을 안 하긴요. 손이 떨리더라"면서 웃음을 보였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보기도 했던 기보배지만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낯선 환경에서 활을 쏘는 게 겁지는 않았다. 기보배는 "관중과 소음,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수들이 보통 올림픽이나 큰 대회를 나가면 성적을 못 내는 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돼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며 "또 그동안 남녀 성대결로 훈련을 해서 부담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같은 여자대표 선수들과 대결을 해서 긴장이 많

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미선은 "큰 야구장에서 많은 사람이 둘러싼 가운데 활을 쏘니 긴장이 많이 됐다. 돔구장이라 천장이 막혀있어서 과녁이 더 멀어보이기도 했다. 바람이 없는 만큼 더 바늘 자세로 정확히 쏘야했다. 좋은 경험이 됐다. 리우에서는 야간 경기도 해야 하는 만큼 라이트를 켜고 훈련을 하는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박채순 감독도 선수들 코칭스태프 모두 만족감이 큰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감독은 "돔구장이어서 소리가 많이 울린다. 야외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데 잘 들리지 않기도 했고 붐 뜨는 느낌이었는데"며 "한발에 승부가 갈리는 만큼 선수들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다행히 결과도 좋게 나왔다. 선수들이 이 분위기가 맞고, 들뜬 기분은 이겨내고 좋은 결과 만들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리우 올림픽, 드디어 실감이 나는 기보배와 최미선이다. 기보배는 "팀워크가 좋다. 앞선 국제대회에서도 단합이 잘되고 결과도 잘 따라와 줘서 자신감을 얻었다. 좋은 것은 유지하되 보완할 것은 연습하면서 좋은 결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미선은 "개인적인 메달도 욕심이 없지만 8연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척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지난 3일 소음적응 훈련을 위해 고척돔을 찾은 양궁올림픽 대표팀의 기보배(왼쪽)·최미선(오른쪽)이 남자대표팀 박채순 감독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우올림픽 한달 앞으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이 오는 6일이면 D-30일을 맞이한다. 리우올림픽은 8월 5일(이하 현지시간) 개막식을 하고 2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 동성고, 청룡기 야구 우승 도전

오늘 배명고와 격돌... 15일까지 37개팀 토너먼트

'전라권 챔피언'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제7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후반기 왕중왕전이 4일 목동야구장에서 개막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대구 상원고를 비롯해 2016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상위 입상팀 37개팀이 참가, 토너먼트로 대결을 벌인다. 막강 화력을 앞세워 7전 전승으로 주말리그 후반기 우승을 차지한 광주 동성고와 순천 효천고(6승1패), 군산 상고(5승2패), 광주진흥고(4승3패)가 나란히 청룡기 무대를 밟는다. 최정원-김석현-박진수의 막강 외야진을 보유한 동성고가 5일 오후 3시 배명고를 상대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KIA 1차 지명을 받은 김승우 투수 유승철이 버티고 있는 효천고는 7일 오후 3시

30분 유신고와 첫 경기를 치른다. 군상상고와 진흥고는 각각 제물포고(7일 오전 10시), 덕수고(6일 오후 3시)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한편 지난해 청룡기 대회에서는 올 시즌 KIA에서 활약하고 있는 투수 정상현이 모교 대구 상원고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를 차지했었다. ◇주말리그 후반기 시상내역 ▲우승: 광주 동성고 ▲준우승: 순천 효천고 ▲최우수선수상: 최정원(동성고) ▲우수투수상: 김진호(동성고) ▲감독상: 박용민(효천고) ▲수훈상: 김한빈(동성고) ▲타격상: 조중현(0.533·진흥고) ▲타점상: 박성한(10타점·효천고) ▲도루상: 류승범(8개·광주일고) ▲홈런상: 박성한(1개·효천고) ▲감독상: 김재덕(동성고) ▲공로상: 이현중(동성고 교장) /김여울기자 wool@